

철학사

39 라이프니츠의 모나드

(아서 홉즈 박사, 휘튼 대학교)

자, 그럼 모두 준비되셨나요? 오늘은 라이프니츠의 모나드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라이프니츠를 간략하게 소개하면서, 그가 17세기 철학을 형성했던 기계론적 과학과 기독교 신앙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홉스와 같은 인물들의 유물론적 경향과 홉스와 스피노자와 같은 인물들의 결정론적 경향 모두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라이프니츠는 기계론적 과학에 대한 스피노자의 자연주의적 범신론적 해석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대의 과학을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과학을 제한적인 역할, 즉 현상적인 차원, 즉 표면적인 현상으로만 보는 대안적인 형이상학적 이해를 통해 그러한 과학과 종교의 갈등을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본적인 현실은 존재하는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는 불가분한 힘이나 에너지 단위인 모나드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모나드는 파괴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복합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자연적인 수단으로도 분해되거나 파괴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들이 영원하다거나, 항상 존재해 왔고, 항상 존재할 것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의 존재는 신에 의해 부여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러한 모나드, 즉 힘의 단위들이 서로 유사한 방식으로 존재의 위계를 구성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최상위 모나드는 완벽한 지각 과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계 구조에서 더 낮은 위치에 있는 모나드일수록 지각 과 욕구의 정도가 낮다. 여기서 '지각'이라는 용어는 분명히 우리가 쓰는 '지각'이라는 용어에서 차용한 것인데, 그는 일부 동물, 즉 모나드가 감각 지각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의식이 전혀 없는 존재조차도, 가장 기본적인 모나드 수준에서는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사물들이 제자리와 기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는 이해 가능한 질서입니다. 영적 모나드를 가진 인간은 감각 의식뿐만 아니라 자기 의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의식을 성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생각을 서로 연관시키고 능동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능력, 즉 추론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능력에는 자기의식이 수반되므로 지각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완벽한 지각력을 갖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자신을 완벽하게 이해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각, 식욕, 욕망, 즉 방향성을 가진 에너지에는 정도가 있습니다. 자연적인 기능이 발휘되고, 정도에 따라 현실화된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궁극적 인과 관계가 명확해집니다. 모든 모나드의 본질, 즉 자연적인 충동, 식욕, 욕망, 경향, 성향 속에 이러한 요소들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용어들은 스콜라 철학에서 궁극적 인과 관계와 연관되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재의 위계 안에서 극미한 차이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파괴할 수 없는 힘의 단위들을 갖게 됩니다. 위계에는 빈틈이 없습니다.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구별이 이 완전한 존재의 사슬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라이프니츠는 연속성 또는 충만함의 원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연속성이란, 그렇습니다. 존재의 사슬에는 틈이나 불연속성이 없습니다. 충만함이란, 그렇습니다. 그것은 가득 차 있으며 빈자리가 없습니다.

충만함의 원리. 물론, 그것은 스콜라 철학자들이 가졌던 존재의 위계 개념과 같습니다. 즉, 온 창조물, 모든 것이 제자리에 존재하며, 함께 하느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존재를 이루는 충만함을 구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충분 이유의 원칙이 존재합니다. 전체 위계질서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고, 전체 위계질서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충분 이유. 그리고 이것은 너무나 긴밀하게 얽히고설킨, 마치 안무처럼 짜여진 전체이기 때문에 완전함의 원칙, 이러한 존재 방식은 선한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이 세 가지 원칙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존재의 위계질서를 설명하는 데 사용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본질적으로 동의할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언급했듯이, 라이프니츠는 스콜라 철학의 존재 개념, 즉 스콜라 철학의 형이상학을 부활시키려 하고 있으며, 이는 토마스 아퀴나스보다는 스코투스에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중세 시대처럼 신의 완전성을 드러내는 일종의 선함을 그 개념에 부여하려 합니다.

그분의 창조물. 그분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것. 그래서 그런 의미가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가 해야 할 일은 이러한 체계, 즉 기계론적 과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궁극적 실재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 발현 중 하나가 바로 그가 말하는 기계론적 기능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신과 신체의 구분, 그리고 신체가 어떻게 작용하고 신체를 구성하는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그 문제에 제대로 접근할 수 없습니다. 신체는 수많은 순간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작용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물체는 복합체입니다. 복합체로서의 물체의 작용 속에서 기계적인 작용과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모나드는 파괴할 수 없는 힘의 단위입니다.

각각의 존재는 정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저마다 고유한 본성과 정수를 지니고 있습니다. 중세인들이 형상론을 통해 고요한 개인들이 어떻게 서로 다른지 설명하려 애썼던 것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다 돈 스코투스가 '히카에오타스(hykaeotas)'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다시 말해, 종의 형태와 그 형태와 결합된 인장 물질 외에도, 개성, 즉 이성(hykaeotas)의 원리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은 각기 다른 본성을 가진 개체를 창조합니다. 이것이 바로 스코투스가 말한 내용입니다

.

그리고 그것이 바로 라이프니츠가 스코투스에게서 포착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개별적인 본질들은 스코투스의 히카에오타스 원리와 유사합니다. 하지만 개별적인 본질들은 공통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히 유사합니다.

스콜라 철학자들이 모든 존재의 초월적 속성이라고 불렀던 것들이 있죠. 그들은 통일성, 선함, 아름다움, 진리 같은 초월적 속성에 대해 이야기했잖아요. 라이프니츠는 바로 이와 유사한 개념을 지각과 욕구라는 용어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지각과 욕구. 즉, 각각은 고유한 본성을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전체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고 있다. 여기서 '알고 있다'는 것은 의식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지각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식욕은요? 네, 그 기능에 있어서요. 식욕은 자신의 본질이 지닌 잠재력을 드러내고, 그에 따라 행동하고, 현실화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의 내적 자원, 그 자체의 본성. 그래서 그는 이러한 개별 모나드를 창문이 없는 존재로 이해합니다. 흥미로운 비유네요.

아시다시피, 창문이 없는 방에서는 외부와의 접촉이 전혀 없습니다. 외부의 어떤 것과도 인과관계가 없죠. 방 안의 모든 것은, 말하자면, 완전히 밀폐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방 안에 저장된 자원 덕분에 자급자족적이고 자체적으로 작동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나드들은 말하자면 그 본성에 프로그래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각을 통해 이루어지는 앎은 모두 선천적인 것이며, 우리의 자각, 즉 의식으로 들어오는 선천적인 관념들입니다.

원하시면 기억해 두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나드는 창문이 없기 때문입니다. 외부 자극이 마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식 자체가 선천적일 뿐만 아니라, 욕망과 갈망 또한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영혼 모나드가 자리 잡고 있는 내면의 잠재력, 내면의 필요, 내면의 방향성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모든 모나드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모나드에 '창문이 없다'는 것은 사고와의 관계든 외적 활동과의 관계든, 모나드 사이에 인과적 연결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과관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그것들은 어떻게 존재하는가? 에너지의 원천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라이프니츠는 때때로 '창조'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신이 그것들을 창조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른 곳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섬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는 신이 그들을 끊임없이 섬광처럼 내리치고 있다고 말합니다. 아마 여러분은 '섬광'이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저도 라이프니츠를 처음 읽었을 때는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당시 제가 가지고 있던 웹스터 사전에는, 그리고 아마 지금도 그럴 텐데, '섬광'은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냥을 켜서 불이 붙을 때 사용되는 표현이죠. 열과 빛을 발생시키는 행위인 겁니다.

특정한 힘의 정도는 신에 의해 끊임없이 생성되고 주입된다는 생각입니다. 신은 존재를 부여하는 힘의 근원입니다. 하지만 신은 모나드에 존재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각 모나드가 고유한 존재 방식을 갖도록 하는 힘의 정도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이신론 초기에 나타나기 시작했던 창조 개념, 즉 신이 창조한 후에 사물이 스스로 존재하고 스스로 작동하게 된다는 견해와는 달리, 신은 끊임없이 존재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토마스 아퀴나스를 비롯한 중세 철학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퀴나스가 우주의 인과 관계의 순서에서 제1원인을 논증할 때, 그는 단순히 전체 원인들 중에서 첫 번째 원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 논증에서 그는 특별히 전체 원인들 중 첫 번째 원인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전체 인과 관계의 모든 단계를 끊임없이 강화하는 초월적 원인입니다. 어떤 단계에 있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따라서 신은 존재를 시작할 뿐만 아니라, 존재를 지속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존재를 유지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라이프니츠는 자신이 발전시키고 있는 개념 체계 안에서 그것을 단순히 되풀이하고 있을 뿐입니다. 신의 섬광. 지난번에 누군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슈토프는 마치 모나드가 신의 본질 그 자체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 아닌가? 이것은 또 다른 종류의 스피노자적 범신론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는 이것들이 영원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것들의 힘, 에너지, 존재는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범신론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의 설명은 전통적인 유대-기독교 창조 개념을 설명하려는 시도입니다. 이 개별 존재들은 각각 창문도 없고 인과관계도 없지만, 그 존재는 신에 의해 유지됩니다. 그 본질은 신 때문에 끊임없이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개별적인 본성이 전체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게 되면, 라이프니츠는 각각이 고유한 본질 덕분에 전체를 반영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각각은 말하자면 전체의 축소판인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므로 자신의 개별적인 본성을 지각과 욕구라는 속성으로 이해한다면, 그 안에서 전체가 지각과 욕구라는 관점에서 어떤 모습인지 엿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지요? 그러니까 각자가 제자리를 안다는 이 은유를 그는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물의 본질, 개별 모나드의 본질은 전체 속에서 특정한 자리를 채우기 위해 필요한 모습을 그대로 반영한다는 거죠. 마치 다른 곳에는 절대 들어맞지 않는, 독특하고 특별한 퍼즐 조각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각각은 전체를 반영하는 것이죠. 잠시 여기서 멈추고 이해가 되시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루스,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했나요? 모나드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고 하셨는데, 스피노자의 이론처럼 모든 것이 수직적 관계에서 비롯되고 사고의 연장을 넘어서는 상호작용이 없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예외적인 부분이 있는데, 스피노자는 이중 측면 이론을 제시해서 사고와 연장이 같은 것의 양면이라고 봅니다. 라이프니츠는 서로 다른 실체를 가지고 있어서, 생각하는 것은 정신 모나드이고, 연장되는 것은 여러 개의 모나드, 어쩌면 영혼 모나드까지 포함하는 복합체라고 봅니다. 하지만 둘은 서로 다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라이프니츠를 결코 만나지 않는 평행 관계라고 말하지만, 스피노자는 둘이 하나의 존재의 양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종 결론이 좀 헛갈려요. 두 번째와 세 번째 비전을 다시 생각해 보려고요.

이성이라는 개념과 창문 없는 사물을 고려할 때, 내가 전체를 반영하거나 다른 어떤 것이 전체를 반영한다고 어떻게 인식할 수 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도 당신은 모든 개인이 절대적으로 독특하다는 이성, 즉 개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논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대의 이러한 개념은 단순히 잘못된 것입니다. 라이프니츠에게도 잘못된 것이었고, 저는 어쨌든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독특하다'라는 말을 너무 쉽게 써먹어요. "모든 눈송이는 독특하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독특하다는 것 자체가 무한한 가치를 지닌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모든 눈송이가 무한한 가치를 지닌 것은 아닙니다. 사물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독특함이 아닙니다. 어쨌든 라이프니츠에게 있어 '독특함'이라는 용어는 유사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에게 일란성 쌍둥이가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지금 두 가지는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라이프니츠는 구별 불가능한 것들의 동일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만약 두 가지가 완전히 구별 불가능하다면, 즉 서로 구별할 수 없다면, 두 가지가 아니라 하나인 것입니다.

구별할 수 없는 것들의 정체성. 하지만 개개인은 마치 일란성 쌍둥이처럼 아주 미세한 부분에서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을 즉시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더 멀리 뺀어 나갈수록 즉각적인 근사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비유는 가능합니다. 존재의 위계에서, 만약 당신이 여기에 있다면, 아뻐싸, 제가 당신을 하급 영혼으로 분류했네요.

제 의도는 전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곳에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동물들에게 애정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특히 사랑하는 반려견에게 연민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동물 권리에 관한 논문과 책을 씁니다. 동물 권리라니. 이 비유가 얼마나 멀리까지 뺀어나가는지 참 흥미롭네요 .

보시다시피, 마찬가지로 영적인 존재라는 특성 덕분에 인간은 하나님 어떤 분이실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생각할 때 말이죠. 따라서 단순히 비유를 통해, 내 본성에는 동물, 하나님, 모든 생명체, 물질적인 사물의 본성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채우고 있는 전체 그림 속 빈자리를 다른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다는 생각을 덧붙여 보세요. 충만함의 원칙에 따라, 다른 어떤 것도 그 자리를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제 본성에는 존재 전체의 메아리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문 없는 관념은 단순히 인과적인 개념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지각, 언어,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유추를 통해 서로 연관 시킬 수 있다는 말인가요? 아니, 잠깐만요.

지각 이라고 하신 게 감각 지각, 즉 외부 자극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아니요, 개념이라고 하신 거라면, 그리고 덧붙여 보니 개요에서 그 두 단어가 섞여 있는 것 같네요 . 데카르트도 그렇고 흄스도 그렇습니다.

지각이라는 용어는 대개 감각 지각을 가리키는 데 사용됩니다. 즉, 감각 지각을 의미하며, 내적 감각이든 외적 감각이든 상관없습니다.

감각 지각. 다시 말해, 특정한 것들과 특정한 속성들에 대한 인식 .
알겠습니다.

개념이라는 단어는 개념, 일반적인 개념, 어쩌면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지칭하는 데 사용됩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덧붙여 말하자면, '감각'이라는 용어는 또 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감각은 특정한 감각 기관 과 그 기관들이 전달하는 것을 가리킬 때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빛의 감각' 처럼 말이죠.

뜨거운 느낌. 쓴맛. 그리고... 민트 향.

크리스마스에는 장미향보다는 민트향이라고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특정한 감각을 통해 특정한 사물 을 인식하게 되는 거죠 .
이해되지요?

이 둘은 보다 일반적이거나 추상적인 의미의 개념과는 구별됩니다. 따라서 라이프니츠에 따르면 우리에게선 선천적인 개념이 존재합니다. 선천적이라는 것은 우리의 정신 활동에서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개념이라는 뜻입니다.

지각. 하지만 지각 역시 우리의 정신 활동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감각과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 역시 내면의 정신 활동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것들은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그 점이 유사점입니다.

보시다시피, 데카르트는 감각 기관에 어떤 자극이 가해지면 그 자극이 뇌와 체액을 통해 전달되어 의식 상태의 변화를 일으킨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감각 지각에 대한 인과 관계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

보시다시피, 라이프니츠는 그렇지 않습니다. 감각이나 지각을 만들어내는 인과관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외부적인 원인의 관점에서 보자면, 생각과 현실의 조화, 그 조화는 완벽하게 조화된 시스템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그분이 사용하시는 또 다른 표현은, 전체 시스템이 미리 정해진 조화 속에서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미리 정해진 조화. 바로 그것이 그를 이끄는 원동력이며, 다음에 악의 문제에 대해 다룰 때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이

세계가 가능한 모든 세계 중에서 가장 좋은 세계라고 말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가능한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세상. 맞아, 그게 바로 개성을 만들어주는 거지 . 개인을 구별짓는 요소야.

이게 당신이 읽은 내용을 종합하는 데 도움이 되나요? 오늘 아침에 라이프니츠의 저서를 다시 읽어봤는데, 모나돌론은 물론이고 자연과 은총의 원리까지 정말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의 깊게 읽어야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명확 하고 분명하게 제시 되어 있습니다 .

자, 라이프니츠와 관련된 다른 어떤 것을 하든 간에, 우리는 이 단일론을 확실히 이해해야 합니다. 모든 사상가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인식론, 윤리학, 신, 악의 문제에 대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다면 , 그 이면에 깔린 형이상학적 체계를 파악 해야 합니다 . 형이상학적 전제들이 모든 것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철학적인 주제뿐만 아니라 어떤 주제를 논하든 간에, 그것을 일반적인 원칙으로 삼아도 무방 할 겁니다. 하지만 만약 뷰캐년의 대통령 후보 출마와 그의 특정한 '미국 우선주의' 가치관에 대해 논한다면, 그 이면에 깔린 형이상학적 전제가 무엇인지 자문해 봐야 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특정 가치관은 그가 가치로 여기는 현실의 본질에 대한 특정한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 전제들로 돌아가 보세요. 플라톤 시대부터 지금까지 쪽 그래왔듯이, 플라톤 철학의 여러 부분 들은 형상과 실체의 구분을 명확히 하면 하나로 통합됩니다.

우리가 그린 도표에서, 바퀴의 중심, 즉 나뉜 선을 기억하시죠? 그 중심선에서 뻗어 나온 바퀴살을 따라 예술, 교육, 윤리, 역사 등등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 라이프니츠 같은 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6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정신과 육체. 아하. 결국 이것이야말로 17세기 유럽 대륙의 세 가지 형이상학 체계를 가르는 주요 쟁점 중 하나였군.

데카르트, 스피노의 정렬 이론, 심신 문제. 자, 이미 이 주제에 관련된 몇 가지 기본 사항을 언급했습니다.

첫 번째는 모나드들이 서로 인과적으로 단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모나드들은 창이 없다는 뜻입니다. 인과적으로 단절되어 있다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육체, 즉 물리적인 몸, 물질적인 몸은 모나드의 복합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살아있는 존재라면, 모든 것을 하나로 통합하는 모나드, 즉 영혼 모나드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가 영혼이라는 단어를 그리스인들과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세요. 영혼은 생명의 근원이며,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형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특정한 본질을 부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물의 특정한 기능, 즉 엔텔레키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의 몸은 살아있는 영혼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살아있는 영혼이요. 그 영혼이 있기에 그 물질 덩어리가 살아있는 동물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살아있는 동물이 될 수 없으니까요.

적절한 생명 기능에는 식욕과 지각 의 정도가 포함됩니다. 자, 우리가 신체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신체들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구성 요소들 사이에는 말이죠.

왜냐하면 수많은 모나드, 그는 수백만 개라고 말하는데, 이 수많은 모나드들이 조직화되고 통합되면 공간적 확장성을 띠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나드 자체는 공간적 확장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애초에 모나드는 어떤 의미에서도 실체가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극히 작아서 공간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크기, 모양, 밀도 또는 기타 공간 점유 특성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속성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그들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복합체인 물체는 공간을 차지합니다.

그것들은 기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그가 어떻게 기계론적 과학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려는지 이해하기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계론적 과학은 물체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과학입니다.

그것은 모나드에 대해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 하나의 모나드와, 역시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 또 다른 모나드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것을 그는 어떻게 설명할까요? 제논의 역설 덕분입니다. 예를 들어, 제논의 무게 역설을 기억하시나요? 기장 씨앗

하나가 무게가 전혀 나가지 않는데, 자루에 각각 무게가 전혀 나가지 않는 기장 씨앗 10만 개가 들어 있다면, 왜 쿵 하는 소리가 날까요? 제가 라이프니츠에게서 단서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부분은 그가 '무한소'라는 용어를 사용한 방식입니다.

그가 말하는 '극소'는 크기가 전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크기를 가진다는 뜻입니다. 측정할 수 있는 크기가 없다. 따라서 무한히 작다.

그래서 숫자가 아주 커지면 비로소 크기가 커지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그가 제시한 설명 외에는 다른 설명을 찾을 수 없어요. 원자론적인 발상과 비슷한 걸까요? 아니요, 만약 원자가 작은 물질 알갱이를 의미한다면, 원자론적인 발상은 아니죠.

그리고 그는 바로 그런 이유로 '원자'라는 용어를 거부합니다. 데모크리토스의 원자는 작은 고체 알갱이였습니다. 모나드는 작은 고체 알갱이가 아닙니다.

반면에, 우리가 현대적으로 생각하는 원자론적 개념, 즉 아원자 입자로 구성된 원자론적 개념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그 입자들은 에너지의 함수일 수도 있지만, 그러려면 물질이 에너지에서 파생되는 에너지론적 물리학이 먼저 필요합니다. 좋습니다. 크리스틴이 가진 문제는 바로 그 이해 단계에서 물질이 어떻게 에너지에서 파생되는지 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는 제가 제시한 '미소'라는 용어에 대한 설명 외에는 마땅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에너지 물리학을 이해할 때까지 기다려 봅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물체들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지만, 모나드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영혼 모나드, 또는 인간의 경우 정신 모나드는 전체를 하나로 묶고 조직하는 원리일 뿐만 아니라 생명을 주고 생각을 주고 방향을 제시하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질서 정연한 전체가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영혼이 육체를 위해 하는 일이 신이 우주를 위해 하는 일과 같다는 거죠. 물론 만물의 질서를 정하는 요소들과는 별개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신이 그런 면에서 하는 일들을 우리는 훨씬 작은 규모로, 훨씬 미미한 정도로 한다고 명확히 말합니다. 우리는 신이 만든 것보다 훨씬 작은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우리는 통일된, 개별적인, 조직화된, 신체적인 형태의 사물들을 만듭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를 지적해 보겠습니다. 모나 돌 로지 (monadology) 책 212쪽과 213 쪽을 보시면 됩니다 .

212, 213. 우선 74항을 보면, 철학자들은 형상이나 영혼의 기원에 대해 오랫동안, 그리고 오랫동안 깊이 고민해 왔다 .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식물, 곤충, 동물을 연구함으로써 자연의 유기체가 혼돈이나 부패, 혹은 자연발생적인 산물이 아니라 항상 어떤 선천적인 형성이 있었던 씨앗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유기체의 몸뿐만 아니라 그 몸 안에 영혼까지도 수정 이전에 존재했다고 여겨져 왔습니다. 다시 말해, 살아있는 동물 그 자체가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정 과정을 통해 이 동물은 다른 종류의 동물로 변태할 준비를 갖추게 된 것뿐입니다. 이와 유사한 현상은 출생 외의 과정에서도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지렁이, 애벌레, 지렁이가 파리가 되고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 즉 , 다른 종류의 존재 로 변태하는 것입니다 .

여기서 그가 다루고 있는 것은, 그리고 그는 나중에 그것을 명명하는데 , 바로 당시의 동물적 사상입니다. 자손이 육체와 영혼을 모두 갖춘 축소판으로 아버지의 정자에 담겨 있다는 견해 말입니다. 완전한 형태로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영혼 모나드는 아버지의 영혼 모나드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고, 그 아버지 영혼 모나드 자체가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스토아 학파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 부분을 언급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영혼의 전승과 개별 영혼의 기원에 대한 스토아 학파의 전승론의 기초였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라이프니츠가 이런 종류의 동물적 존재론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대략 적인 상황 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작은 미생물들이죠. 바로 그거예요. 네, 이건 생기론이라는 철학적 관점의 일부인데, 생기론은 생명을 단순히 물리적, 화학적인 것과는 구별되는 어떤 것으로 봅니다.

네, 생기론은 20세기 중반까지 계속해서 번성했죠. 현미경의 발명과 맞물려 생명의 새로운 세계가 열린 셈 이니까요. 훌륭하네요.

다시 말해, 스피노드를 렌즈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인간의 영혼을 포함한 모든 영혼의 기원에 대한 그의 견해입니다. 정자에는 영혼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몸은 그것이 자라기에 따뜻하고 좋은 장소를 제공해 줍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해 보세요.

번역주의는 단지 발전할 씨앗을 품고 있을 뿐, 이미 그런 씨앗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저는 대략 이 두 가지 관점을 구분하고 있는 겁니다. 생물학, 특히 유전학에서 말이죠. 네, 동물주의는 이러한 관점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신학에서 개인 영혼의 전승이나 기원에 대해 이야기할 때, 영혼이 전승된다는 견해인 전승론(traducianism)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테르툴리안이 기독교 사상에 도입한 전승론은 사실 스토아 학파의 견해, 즉 일종의 동물론을 수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라이프니츠 역시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듯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대 유전학의 발전은 상황을 상당히 바꿔놓았습니다. 생물학적 생기론은 이제 드문 현상이 되었습니다.

1940년대에는 특히 프랑스에서 일부 계층에서 꽤 인기가 있었죠. 50년이라는 시간은 정말 큰 변화를 가져왔네요. 그렇군요.

75항. 이 내용이 다시 나옵니다. 수정부터 더 큰 동물의 단계까지 자라는 일부 동물은 정자 형성 동물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들 중, 즉 대부분을 차지하는 같은 계층에 남은 자들은 마치 큰 짐승처럼 태어나고 번성하고 죽습니다. 선택받은 소수만이 더 큰 무대로 나아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됩니다. 이것은 진실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만약 동물이 자연적인 수단으로 시작하지도 않고 자연적인 수단으로 끝나지도 않는다면, 탄생이 없을 뿐 아니라 엄밀히 말해서 완전한 소멸이나 죽음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 한번 보자. 그리고 나서 80번째 문단에서 그는 데카르트를 비판하기 시작하며 차이점을 지적한다.

데카르트는 물질에는 항상 일정한 양의 힘이 존재하기 때문에 영혼이 물체에 어떤 힘도 부여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혼이 물체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으며, 이는 오직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시대에는 물질의 전체적인 방향성이 보존된다는 자연 법칙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이 법칙을 알았다더라면, 인과관계보다는 예정된 조화라는 제 체계를 받아들였을 겁니다. 네.

이 체계에 따르면, 육체는 마치 ~인 것처럼 행동하는데, 이는 불가능합니다. 영혼은 존재하지 않고, 영혼은 마치 육체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며, 둘 다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불쌍한 데카르트여. 정신이나 이성적 영혼에 관해서는,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그것들이 오직 세상에서 시작하고 세상에서 끝난다는 것이 모든 생명체와 동물에 근본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을 알지만, 이성적 동물에게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정자를 가진 미생물이라는 점입니다. 새가 바로 그런 존재로 남아 있는 한, 그들은 단지 일반적이거나 감각적인 영혼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인지 능력이 낮은 수준이죠. 하지만 말하자면 선택받은 자들, 그러니까 그가 개신교 칼뱅주의자인 것처럼, 선택받은 자들은 실제로 인간 본성을 갖게 되는데, 신이 그들을 선택하는 것이고, 그들의 예민한 영혼은 이성의 단계와 영적인 특권으로 승격됩니다. 일반적인 영혼과 마음 또는 영 사이의 다른 차이점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영혼은 우주 만물의 살아있는 거울 또는 이미지입니다. 영혼의 본질은 바로 그 거울입니다. 하지만 마음 또는 정신은 더 나아가 신성 자체의 이미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우주의 체계를 이해하고 건축학적 본보기를 통해 그 일부를 모방할 수 있으며, 각자의 정신은 그 자체로 작은 신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영들은 하나님과 일종의 교제를 이룰 수 있으며, 하나님은 그들의 자녀에게 아버지와 같은 존재가 되십니다.

그래서 신의 도시, 보편적 군주제, 자연 세계 안의 도덕적 세계, 신의 가장 신성한 창조물 등과 같은 개념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정신 또는 영혼의 역할이 매우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제 한 가지, 바라건대 두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식론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심신 문제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창문 없는 모나드에서는 의식적 자각이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발생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는 영혼 모나드는 기껏해야 감각 지각과 잔존 기억 정도만 가질 수 있다고 꽤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동물은 감각 지각과 오래가는 기억을 가질 수 있고, 따라서 인식과 조건화된 행동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 존재에 이르면 그 이상의 것을 얻게 됩니다. 바로 추론 능력입니다.

그가 하는 일은 우리가 가진 두 가지 종류의 추론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적 진리이고, 둘째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성적 진리입니다. 사실적 진리는 우연적입니다.

다시 말해, 사실적 진리는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관한 것이며, 따라서 우리가 그것들을 인식하는 것은 우리가 내면적으로 인식하는 이러한 연속적인 사건들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적 진리는 우연적인 반면, 이성적 진리는 논리적으로 필연적인 진리입니다. 논리적으로 필연적인 진리는 사고의 법칙, 즉 A는 A와 같고, A는 비A와 같다는 논리적 형태를 지닙니다.

사실의 진리는 충분이성의 법칙에 의존하는 반면, 이성의 진리는 모순율에 의존합니다. 네, 이 차이점입니다. 사실의 진리와 이성의 진리 사이의 차이점은 꽤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주장합니다. 라이프니츠는 독일인이었지만 프랑스어와 라틴어로 글을 썼습니다. 당시 독일어는 문학 언어가 아니라 학문적인 언어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사실이라는 것은 특정한 역사적 사건들의 우연성에 달려 있습니다.

이성의 진리요? 음, 예를 들어 개념 안에 이미 논리적으로 내포된 것을 풀어 설명하는 정의 같은 것이라면 무엇이든 될 수 있겠죠. 데카르트처럼 삼각형의 세 각의 합은 두 개의 직각입니다. 산이 없으면 계곡도 있을 수 없죠. 왜냐하면 산과 계곡은 그 개념 자체, 즉 삼각형이나 산과 같은 일반적인 개념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논리적으로 필연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물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 그 개념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실의 진리 사이에는 구별이 존재하며, 이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는 우연적이고 다른 하나는 필연적이라고 말하는 것, 하나는 충분이유의 법칙에 의존하고 다른 하나는 모순율에 의존한다고 말하는 것 또한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아리스토텔레스도 같은 말을 했을 것입니다. 차이점은 두 종류의 진리 모두 우리가 창문 없는 순간들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선천적이라는 것입니다 . 심지어 데카르트조차도 감각 지각이 감각 자극과 심신의 인과적 상호작용에 의해 물리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을 인정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라이프니츠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감각 지각조차도 선천적이라고 했습니다. 동물의 감각 지각조차도 선천적이라고 했습니다.

예정조화론은 그런 식으로 작용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자유, 인간의 자유, 의지, 그리고 지성에 대해 무엇을 말해줄까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데카르트, 홉스, 그리고 스피노자가 자유, 의지, 그리고 지성에 대해 논의한 내용은 전적으로 효율적이고 물질적인 인과관계라는 개념의 맥락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매우 신중 해야 합니다 .

바로 그겁니다. 반면에 라이프니츠는 모나드가 물질적 원인, 효율적 원인, 형식적 원인, 목적적 원인 모두라고 말합니다. 그는 다시 아리스토텔레스의 네 가지 원인론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의지를 원인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 효율적 인과관계 방식이나 결정론 또는 비결정론과 같은 관점이 아닌 다른 관점에서 이해할 것입니다. 데카르트의 관점처럼 자유의지가 마치 인과관계의 진공 상태에서 단순히 자신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따라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의지는 지각 과 욕구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 내적 방향성, 내적 동기, 최종적 인과관계가 존재하며, 자유롭다는 것이 무엇인지 효율적 인과관계뿐 아니라 최종적 인과관계의 관점에서 정의 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이 단일론에서는 최종적 원인과 형식적 원인이 부재하는 공백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가 적어도 이 점에 있어서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유와 결정론에 대한 현대의 많은 논의는 자유의지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효율적 원인이 없는 것이라는 전제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자유를 비결정론과 동일시하는 것이죠 . 그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가 옳다고 생각해요. 만약 우리가 목적 있는 존재이고, 인간의 행동과 존재를 관통하는 목적론이 있다면 , 자유에 대해서도 목적론적인 개념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이제 문제는 그의 목적론적 자유 개념이 그것을 실현할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그러니 같은 시간, 같은 채널에서 다시 만나요. 그때 그 이야기를 이어가고 악의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